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54-1호 2003년 3월 6일(목)

제목1: 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행료 동의서 송부요망

-총회에서 협회비를 2월까지의 기존 30만원으로하고, 3월부터는 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행료를 협회비로 대체하여 가입되지 않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회사별로 동의서를 보내었사오니 아직 보내지 않은 업체에서는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없으시면 협회로 연락하여주세요.

제목2: <프로필> 김정호 농림차관

행시 17회로 75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28년간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농정 전문가로 통한다.

99년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청와대 농림해양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농업기반공사 설립, 농업협동조합 통합, 농산물유통개혁, 농어가부채대책 추진 등 굵직한 농업분야현안을 대과 없이 마무리했다는 평이다.

영어에 능통하고 95년 2월부터 98년3월까지 스위스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감각도 익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등 국제통상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임이라는 평가다. 부인 이희경(49)씨와 1남1녀.

▲대구(54) ▲서울대 공대 섬유공학과 ▲미국 오리건대 농업경제학 석사 ▲농업정책국장 ▲주 제네바대표부 참사관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발체: 대한양돈협회

제목3: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로

"삼(3)자가 겹치는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날." 한 해 걸러 구제역 홍역을 치른 경기도 파주시와 파주 축협이 3일을 삼겹살 데일로 정했다.

시와 축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촌동 파주 축협 판매점에서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를 갖고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들에게 공짜 삼겹살 파티도 연다. 파주지역 길거리에는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삼겹살 홍보전단도 뿌린다.

파주지역 양돈농가들은 2000년 3월 구제역 파동을 겪은 데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재발, 전국 돼지고기 재고량이 1만t에 달할 정도로 소비가 감소하자 이색 판촉 이벤트를 마련했다.

경남농협지역본부 창원 하나로클럽도 이날을 삼겹살 데일로 정하고 오전 11시부터 소비자들에게 수출하는 돼지고기 부위 1kg씩을 선물하는 행사를 갖는다.

경남농협측은 "돼지고기는 중금속을 해독하고 윤택한 피부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6월 6일과 9월 9일도 삼겹살 데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체: 양돈진흥

제목4: 러시아로 수출 재개

러시아로의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된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으로 중단됐던 한국산 돼지고기를 지난 10일자로 수입해 갈 방침임을 전달해왔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러시아 정부는 위생조건을 놓고 실무자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농림부는 내다보고 있다.

발체:축산신문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54-2호 2003년 3월 6일(목)

제목5: 김영진 농림부장관

농고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제13대부터 16대 국회까지 15년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만 활동한 원내의 대표적 농정 전문가.

지난 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시국토론 과정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고, 16대 대선때는 노 대통령의 농정특보를 맡았다.

70년대 10년동안 농협에 근무한 경력도 있는 그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며 제네바에서 삭발투쟁을 벌인 것으로 국민시선을 끌었다.

최근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고 있으나 언론에 민감하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국회 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부인 윤승남(51)씨와 1남2녀.

▲전남 강진(56) ▲전남 강진농고 ▲민주쟁취국민운동 전남본부 상임공동의장 ▲평민당 원내부총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장

발췌: 연합뉴스

제목6: 김영진 농림장관 “신뢰받는 농정 구현” 약속

-통상협상 심혈...UR실패 되풀이 않을 것-

농업계와 정치권은 농민과 농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 장관이 농가부채 및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쌀 재협상, 협동조합 개혁 등 산적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을 기대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식에서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아온 데서 탈피, 신뢰받는 농정상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농업대책뿐 아니라 각 품목별 대책과 방향, 통상협상 분야까지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 UR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더 이상 탁상논리를 배격하고 현장중심의 농정, 정부와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농정을 실현, 우리 농업의 농정개혁과제를 달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어 “WTO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와 쌀 관세화 유예, 노무현 대통령이 촉구하고 농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5년 내 달성하도록 시기, 방법, 주체, 예산을 담은 농정공약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신뢰받는 농정’을 이루고, 참여정부 답게 밀실행정을 버리고 농민단체와 함께 농정현안을 풀어나가는 장관이 되길 당부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식량자급, 농가 소득보장, 통일대비 농정을 수립하고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환하는 농가부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며, 쌀 관세화 유예 관철, 경제사업 중심으로 협동조합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인가를 가능하게 하는 뜻있는 인사”라며 “의원의 말과 장관의 행동이 일치된 참된 농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발췌: 농어민신문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